

네팔, 발전소 ‘고립 추정’ 실종자 900여명 구조 총력전

6곳중 1곳 터널 내부 접근 후 수색

네팔·中 사망 955명·실종 4천471명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 발생 7주째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네팔 당국이 피해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900여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네팔 재난관리청은 대홍수로 인해 네팔 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의 트리슈리 3A, 3B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이들 발전소의 터널에 접근하는 데 구조 작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 트리슈리 3A 발전소에서는 구조대가 전날 터널 상부에 4개의 구멍을 굴착한 뒤 터널 내부로 접근하는 데 성공했으며, 내부에 갇힌 사람들의 위치와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조대가 공유한 사진과 영상에는 중장비가 진흙과 바위를 파내고 치우는 가운데 네팔군·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 터널로 진입할 공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담겼다.

라자 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엄청난 양의 잔해물이 쌓여 있어 터널을 개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의 주된 목표는 터널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피해지역인 라수와의 행정 책임자 나렌드라 파리아르는 이날 날씨가 나아지면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했던 어퍼트리



신속대응팀 태우고 이륙하는 헬기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1일(현지시간) 네팔 라수 와 지역 단체 군 헬기장에서 헬기에 탑승해 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리(UT)-1 발전소의 터널에서는 구조대가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이 밝혔다.

군은 네팔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안 약 300m까지 진입, 수색 작업을 벌여 시신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을 통해 (신원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지빌리티가 건설하던 이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한 곳이다.

어퍼트리슈리-1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지난 29일 구조된 인도 노동자 수렌드라 다울리(33)는 홍수 당시 “매우 큰 소리가 들렸고, 터널 바닥이 진흙·얼음이 섞인 물에 잠기면서 노동자 6명이 그 안에 갇힌 것을 봤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그는 “일부 노동자들이 급류가 닿지 않는 고지대나 공사 구역으로 대피했다”면서 “그중 5명은 우리가 구조했지만, 1명은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네팔 독립발전사업자협회의 모한 쿠마르 당기 회장은 AP통신에 어퍼트리슈리-1 발전소에서 576명이 연락 두절됐고 이 중 약 300명이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두산에너지빌리티 헬기 1대가 어퍼트리슈리-1 발전소의 한국인 실종자들이 있던 사무동과 상부 위에 댐 상공을 비행하며 수색했으며, 발전소 파워하우스 인근에 착륙해 수색 인력들이 직접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확보한 헬기 1대도 상공 수색을 했다.

한편 네팔 구조대는 또 다른 발전소인 철리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도 시신 2구를 수습했다.

구조대에 합류한 인도 터널 구조팀은 터널 안쪽 약 100m까지 진입했지만, 터널이 진흙 등으로 막혀 있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날 네팔 내 홍수 사망자가 최소 93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지만, 실종자는 3천925명(외국인 502명)으로 기존 집계보다 300여명 줄어서 수정했다.

실종자 중 일부의 사망이 확인됐는지 여부 등 실종자 수가 하향 수정될 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사망(티베트)자치구 지역 사망자 16명, 실종자 546명(외국인 261명)과 합치면 홍수 전체 사망자는 최소 955명, 실종자는 4천471명으로 나타났다.

네팔과 맞닿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당국은 홍수가 난 네팔 트리슈리강의 하류인 간다크강 등지에서 지금까지 홍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 1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은 이들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은 네팔 당국의 공식 사망자 집계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발렌다르 샤 네팔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명·재산·기반시설 피해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천후와 협조한 지형, 계속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이 (구조·복구) 임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日 최고령자 115세로 사망...109세 때 성화봉송

100세 이상 55년 연속증가...10만명 육박

일본 최고령자로 나라현 야마토코리아마시에 살던 가가와 시게코(賀川滋子)씨가 27일 별세했다고 지자통신 등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향년 115세.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11년 5월 태어난 고인은 지난해 7월 오이타현 나카쓰시의 114세 여성이 사망한 이후 일본 내 최고령자였다. 가가와씨의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가가와씨는 109세였던 2021년 4월에 도쿄 올림픽 최고령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1934년 오사가 여자고등의학전문학교(현 간사이의과대학)를 졸업한 그는 병원 근무를 거

쳐 1937년 거주지였던 야마토코리아마시에서 개업한 의사였다. 80세가 넘어서까지 산부인과·내과 의사로 활동했다.

가가와씨가 별세하면서 현재 일본 최고령자는 114세인 교토시 거주 기시모토 후요씨가 됐다.

1908년 5월 태어나 세계 최고령자였던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이토오카 도미코씨가 2024년 12월 116세로 숨지면서 세계 최고령자는 1909년 8월 태어난 영국인 에셀 캐터햄씨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수가 55년 연속 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10만명에 육박한 9만 9천736명으로 1년 전보다 4천644명 증가했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이틀째 긴장감...유조선 피격·운항 정지 잇따라

美·이란 한달만에 교전...통항 압박 고조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한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1일(현지 시간)로 이틀째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전날 교전을 끝내고는 이날 현재까지는 새벽 시간대 충돌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통항 중 유조선을 겨냥한 포화와 통제가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I)는 이날 공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이 유조선은 오만의 해안 도시 카사브에서 동쪽으로 17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발사체 세 발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같은 날 이란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회랑을 통과하던 중 운항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UKMTI는 전날 인도양에서 유조선과 군 병력이 연루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사안의 연관성이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 중인 이란이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군사공격까지 재개하자, 이란도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군은 전날 이란 라라크섬에 설치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공습하며 한 달여 만에 군사 공격을 재개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31일 새벽 미군 기지가 있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미사 일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은 바로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IRGC 해군이 발표한 해협 통과·항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라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